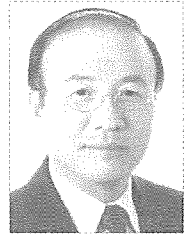


국민건강 살리는 환경정책



이규용 | 환경부차관

지난 '90년대에 우리는 환경사에 전환기가 될만한 몇 가지 실마리를 경험했다.

그 중 하나인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쓰레기종량제와 같은 선진환경정책의 도입은 커다란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의 전환도 가져왔다.

이런 노력으로 한강, 낙동강 등 주요 상수원 수질이 개선되고 1인당 쓰레기 발생량도 줄어드는 등 통계수치로 본 우리나라의 환경의 질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의 질은 아직 그리 높지 않은 모양이다. 국민 환경의식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45% 정도만이 수도물을 끓여 마시는 등 음용하고 있으며 10중 9명은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느낀다고 대답했다.

인구 3%가 아토피성 환자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의 질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나타나는 것은 최근 새롭게 등장한 실내공기 오염, 환경성질환 등의 환경문제가 큰 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4세 이하의 영·유아 18%가 각종 아토피 질환에 시달리고, 특히 어린이뿐 아

니라 성인들 사이에서도 이 질환이 급증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3% 가량이 아토피 질환자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환경부가 올해를 환경보건 원년으로 선포하고 본격적인 환경보건정책을 펼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간의 환경정책이 대기·수질 등의 오염원을 관리하는 데 치중하느라 환경 속의 주체인 사람의 건강에 관심을 덜 여력이 없었는데, 이제는 환경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람과 생태계의 건강을 보호하는 쪽으로 환경정책을 전환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우선 환경오염과 환경성 질환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오는 5월부터 1년간 도시와 농촌 9개 지역을 선정해 10세 미만 어린이 2,7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설문조사를 벌여 아토피와 천식 실태를 조사하고, 올해부터 2010년까지 환경오염에 특히 민감한 임산부와 영·유아 1,500명을 대상으로 아토피성 피부염과 천식, 성장발육장애 등을 추적조사할 계획이다.

어린이 용품에 든 유해물질의 피해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장 3월부터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감시체계를 만들고, 하반기에는 어린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놀이

터와 같은 장소의 납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또, 어패류에 축적된 수은 등 중금속의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4대강 주요 하천별로 어패류의 수은 함유량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생활환경은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도 추진한다.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도로 등 7개 주요사업에 대한 친환경적 개발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우선 올해는 레저·관광단지, 도시·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특히, 우수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은 지속적으로 보전하면서도 웰빙 문화의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자연환경이용에 대한 국민적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관리 방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체험테마를 선정하고 관련 체험 장소를 연결하는 국토생태탐방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만들 계획이다.

하천 역시 생태적으로 건강성이 회복된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확대·추진해 도심내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으로 평가하던 수질환경도 기준을 정비해 매우 좋음에서 매우 나쁨까지 등급을 분류하고 수질상태에 따라 버들치, 쉬리, 다슬기


류, 물달팽이류 등 생물지표종을 제시해 국민이 수질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태 보전 · 휴식 공간 동반확충

물론 이러한 노력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도 짧은 시간 안에 환경성 질환이 대폭 줄지는 않을 것이며, 국민의 환경체감지수가 단기간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환경보전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법률 등 제도적인 개선이 지속 이루어져야 하고 안정적인 환경예산의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아름다운 환경과 건강한 미래,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방향과 대책은 이미 마련되었다. 이제부터는 수립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정책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채 10년이 되지 않는 기간 안에 기본적인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넓혔듯이 올해의 업무계획을 통해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틀을 다진다면 10년 후의 우리 환경은 한층 쾌적한 모습으로 사람을 감싸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기고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기획특집 코너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환경관계법규」 판매안내

법규Ⅰ(대기편), 법규Ⅱ(수질편), 법규Ⅲ(폐기물편)

· 정가 | 23,000원

· 구입문의 | 02)852-2291(연합회 사무국)